**<디지털프로젝트 세미나보고서>**

**1. 팀명: B.AB.O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프로젝트명** | mooDiffuser | |
|  | **구 분** | **이 름** |
| 교수 | 강남희 |
| 학생 | 김민진, 방예지, 김소현 |
| **날짜** | 2021/04/05 | |

**2. 세미나 내용**

|  |
| --- |
| 이번 세미나는 저번 발표에 대한 피드백 시간이었다.  4/5 캡스톤  날씨 반영 비중 30 괜찮지 않아?  > 날씨 빼고 감정을 늘렸음, 무드는 4가지  향을 섞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? 고민해봐  데이터셋 문제, 엔진을 가져다 쓸건데 데이터 모습을 어떻게 정제했다 또한 의미를 가질 것  > 제공된 모델과 데이터를 돌리면 과접합이 발생, 데이터셋이 더 필요, 보통 긍정 부정만 나뉘어서 그 레이블을 7기지로 판단해서 바꾸는 작업 중  > 주관이 들어간 데이터셋이 들어가면 오히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? 하지만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  사용하는 모델이 뭐야?  > KoBERT 사용  왜 데이터셋을 두개로 분리했을지 고민해봤나? 이진분류를 제일 잘 해서임. (개가 맞다/아니다)  강화학습 기반인지 단순 분류 모델인지 멀티 분류 모델인지 예측 기반 모델인지를 정해야해.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을 너네가 맞춰야함  \*\* 8월 말까지 러닝 완료하기 \*\*  \*\* 두단계 계층적으로  긍정/부정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나누는 것은? 두개 엔진 사용하기  예지랑 소현도 파트 나눠봐  날씨에 따른 분사 양의 조절/ 시간 단위로 생각 텀을 주고?  > 양 조절이 힘들 수도 있음  > 문장에서 감정 추출이 어려움, 감정 단어 리스트를 만들어 직접적인 감정을 입력  그럼 바이러니 모델을 사용. 감정별로 클래스를 만들어 맞다/아니다를 판단하게 해야함  이게 아니면 그냥 스위치 케이스문이 될 것  한 엔진이 감정 한개를 감당 > 여러개의 엔진을 연결해 판단이 가장 현실적  바이너리 모델 하나를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아  라즈베리 파이에 인공지능 로직이 돌 필요가 있을까?  빠른 반응과 비용, 상용화라면 온디바이스가 나을 듯  해보고 어려운 점이 생길 것. 그걸 어떻게 해결 했는지를 알려줘. |

**3. 증빙 사진**

|  |
| --- |
| 오프라인으로 진행. |